

터무니없음 : 類似性 創造의 文化的 意味

金 大 幸*

1. 資 料

돌아보면 1980년대는 우스갯소리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다. 매우 다양한 말들이 우스갯소리의 모습으로 유행하고 또 사라져 갔다. 이 가운데 한 유형이 '터무니없음'의 발상법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

- (1) 손에 항상 무엇을 들고 다닌다.
- (2)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3)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 (4) 얻어 먹을 줄만 알지 대접할 줄은 모른다.
- (5) 되기가 어렵지, 일단 되면 먹고는 산다.

[교수와 거지의 다른 점]

- 거지 마누라는 남편을 하늘같이 아는데, 교수 마누라는 남편을 거지같이 안다.

이 자료를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명명한다. 이를 '같

* 서울대 교수

은 점 찾기' 유형이라고 한다면, '전두환과 이주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명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도 이 유형에 속한다.

[전두환과 이주일의 같은 점]

- (1) 두 주일만에 유명해졌다.
- (2) 둘 다 대머리다.
- (3) 둘 다 축구를 좋아한다.
- (4) 둘 다 웃긴다.
- (5) 둘 다 푸른 집에 산다¹⁾.
- (6) 데뷔 시기가 같다.

[전두환과 이주일의 다른 점]

- (1) 이주일은 혼자 웃기고, 전두환은 듀엣으로 웃긴다.
- (2) 이주일은 웃기는 것을 아는데, 전두환은 웃기는 것을 모른다.
- (3) 이주일은 나이트 쇼에서 웃기는데, 전두환은 9시 뉴스 시간에 웃긴다.
- (4) 이주일은 밤에만 웃기는데, 전두환은 시도 때도 없이 웃긴다.²⁾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의 두 자료 가운데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A, '전두환과 이주일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B로 지칭하기로 한다.

2. 構 造

1) 隱 喻 的 性 格

A, B 두 자료가 보여 주는 언어 형식은 'X와 Y의 같은 점은?'이라는 구조를 취한다. 여기서 '같다'는 말은 '동일함'을 뜻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비교·비유하여) 비슷하다'는 뜻을 갖는 것이 용례상의 실상이다. 따

1) 이주일은 '草原의 집'에, 전두환은 '靑瓦臺'에 있음을 뜻함.

2) 徐廷範, 『가라사대別曲』, 汎潮社, 1989, pp.15-6.

라서, ‘같은 점’ 찾기라는 말은 ‘동일성’ 찾기라기보다는 ‘유사성’ 발견 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사성 발견하기가 은유적 활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은유의 구조를 대표하는 ‘X는 Y이다’의 형식에서 ‘-이다’는 지정이나 정의에 의한 설명과 구별되는 형식이며, 은유 형식에서의 X와 Y는 서로 별개의 것임이 전제되어 있다. 은유의 본질을 가리켜 ‘이질성을 전제로 한 동질성의 인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까닭이다.

‘X와 Y의 같은 점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면서 이루어지는 사고 진행을 다른 언어 형식으로 바꾸어 보면 은유적 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료 A를 가지고 그 사고의 연쇄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X의 ⊕은 Y의 ⊙과 같다. [교수가 항상 손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거지가 항상 손에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 (2) X는 Y와 같다. [교수는 거지와 같다.]
- (3) X는 Y다. [교수는 거지다.]

Richards의 용어로는 X가 tenor, Y가 vehicle이며, Bipin의 체계로 보면 X가 target이고 Y는 source가 된다³⁾. 이런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뒤에서 상론된다.

2) 類似性 創造

유사성 창조 개념은, 관용과 신기성을 구분하는 경계가 칼로 그은 듯이 선명하게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점’ 시리즈가 보여 주는 유사성은 ‘창조’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3) Bipin Indurkha, *Metaphor and Cogn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pp.14-5.

‘관용’을 ‘정해진 대로 쓰는 것’ 또는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 성격은 문화의 문제가 된다. Susan Stewart⁴⁾에 의하면, 문화는 ‘분류’의 활동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대상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것을 질서화함으로써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의 분류와 질서화는 이제 다시 구성원들의 인식을 규정하는 틀이 된다. 이래서 문화를 ‘방식’이나 ‘질서’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분류와 질서에 준한 용법일 경우 관용이 된다.

이 점은 지식의 문화성과도 관계된다. 지식이란 개체적 사실로부터 (1) 추상화, (2) 일반화, (3) 형식화, (4) 개념화의 과정을 통해 사고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은 그 문화의 분류 체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며, 이 점에서 지식의 문화적 관용성이 작용하게 된다.

문화의 성격과 지식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같은 점’의 예화들은 유사성의 관용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라 할 수 있다. ‘같은’ 점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은유적 구조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교수’와 ‘거지’는 분류상으로 이질적 존재임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이질적 존재 사이의 유사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류의 체계를 뒤섞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의 본질에서 일탈하는 행위이며, 이 점에서 자료 A와 B는 관용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이 유사성을 창조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 ‘터무니없음’

‘같은 점’ 예화의 유사성 창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수는 거지다’와 ‘나는 꿈이다’라는 진술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관한 해석이다. 둘 다 문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분류의 체계를 뒤섞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나는 꿈이다’라는 진

4) Susan Stewart, *Nonsense: Aspects of Intertextuality in Folklore and Literatu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pp.57-8.

술에서 감지되는 여러 요소들은 ‘교수는 거지다’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꿈이다’와 같은 은유 표현의 낮익음에 관한 문제다. ‘나(인간)’와 ‘꿈’의 병치가 생물학적 분류 체계를 뒤섞고 있다는 점으로 본다면 이 또한 유사성의 창조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별다른 기이성을 느끼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은 이러한 은유 표현이 널리 사용되어 관습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 표현이 맨처음에 새로운 용례로 출현했을 때에는 그 신기성이 감지되었을 법하지만, 거의 사은유에 가까울 정도로 팽포된 용례 때문에 그러한 성격의 분류 체계 뒤섞기는 이제 와서 새로울 것이 없는 은유의 관습성으로 인지되기에 이르렀다는 가정을 해 본다.

‘교수’와 ‘거지’의 병치는 이 점에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 표현도 또한 세월과 함께 친숙해지면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는 평범한 진술로 받아들여지게 되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어떤 문화 양식도 출현 당시의 신기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임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 두 번째로 듣는 사람에게 이 예화들이 주는 충격의 과장이 첫번째의 그것과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A와 B의 예화도 결국은 신기성의 문제로 국한될 수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 ‘나는 꿈이다’와 ‘교수는 거지다’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사회적 의미’의 유무라는 점에 눈에 들어온다. 이를 단서로 하여, 교수와 거지의 신분을 인식하는 사회구성원 분류 체계상의 차이가 ‘교수와 거지’ 예화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워 본다. 이 점에서 이 예화는 사회성 또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 충격을 던진다는 뜻에서 사회성 또는 사회적 의미다.

이런 가정이 ‘나는 꿈이다’라는 진술에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나는 꿈이다’가 꿈의 우직함, 굼뚱, 어둔함 등을 함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곰을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있는 상황, 예컨대 동물원의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사육사’와 ‘곰’의 병치를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성립되는 은유일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데 ‘교수와 거지’의 충격과 흡사한 성격의 과장이 형성될 것이다(흡사하다는 것은 구조의 문제이며, 이 때 충격 정도의 차이는 논외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가정이 함축하는 의미는 source와 target, 혹은 tenor와 vehicle 사이의 분류를 이루는 공통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은유가 주는 의미상의 신기성이 성격을 달리할 것임을 뜻하게 된다. ‘나는 나무다’나 ‘황혼은 에테르다’ 등 대부분의 은유에서는 은유되는 것과 은유하는 것 사이에 공통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공통성보다는 이질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며, 따라서 은유 구조의 형성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교수와 거지’의 은유는 사회 구성원을 뜻하는 여러 개념들이 분류상의 두 항을 연계시키는 공통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점에서 동질적(사회 구성원 분류 체계)이면서 이질적(전혀 다른 위상)이다. 전혀 이질적인 것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는 무작위성과는 다른 구조를 보인다. 이 점은 ‘전두환과 이주일’에서도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비유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 사이에 놓이는 공통축의 존재 유무 또는 성격이 그 비유 구조의 의미를 기속한다는 점이 관찰된다. A와 B의 두 예화가 사회 구성원의 축을 공유한다는 점은 사회의 문제에 관련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성의 축에서 이질적인 두 분류 체계를 뒤섞어 놓는 일은 문화적 질서의 파괴라는 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문화적 질서의 파괴가 공통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공통축에 기반한 분류 체계로 인식되는 문화적 질서 감각에 충격을 줌을 뜻한다. 이 충격은 동질화할 수 없는 두 층위의 분류를 뒤섞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의미를 동반하게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인지적 효과는 사회 문화의 질서 파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문화 질서의 파괴에 의한 인식의 효과를 ‘터무니없음’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터무니없음’이라는 용어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용례 구분에 따른 것이다.

- 허황하다 : 헛되고 황당하여 미덥지 못하다.
- 황당하다 : 언행이 거칠고 거짓이 많다.
- 엉뚱하다 : (1) 말이나 행동이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
(2)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짐작하였던 것과 전혀 다르다.
- 어이없다 :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어처구니없다)
- 터무니없다 : 허황하고 엉뚱하여 어이가 없다.
- 엉터리 : (1)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2) 허울만 있고 빈약하거나 실제와 어긋나는 것.
(3) 대강의 윤곽.
- 엉터리없다 :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 자료 A와 B의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로 ‘터무니없다’를 채택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즉 ‘허황함’의 ‘헛되고 황당함’과 ‘엉뚱함’의 ‘(2)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짐작하였던 것과 전혀 다름’의 의미상 내포가 문화적 질서의 파괴와 가장 근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논의와 관계된 의미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차례로 놓아 보면 ‘허황하다 < 엉뚱하다 < 어이없다 < 터무니없다 < 엉터리’의 순서가 되겠는데, ‘엉터리’를 용어로 채택하지 않는 까닭은, 실제의 언어 생활에서 그 뜻풀이 가운데 (2)번 뜻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과 독립적 용어로 사용될 경우 (3)번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터무니없음’은 Susan Stewart의 용어인 ‘nonsense’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속학자로서 nonsense의 개념에서부터 실상과 유형을 분류해 보인 그녀의 연구는 이 문제를 사고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 둔다.

3. 機 能

1) 相互作用 - 感染效果

Bipin의 상호작용 이론에 힘입어 ‘교수와 거지’의 구조에서 ‘교수’를 target, ‘거지’를 source로 설정하고자 한다.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을 ‘교수는 거지다’로 바꾸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Bipin의 target과 source의 개념에 꼭 일치하지는 않는 듯하다. ‘The sky is crying’에 관한 설명⁵⁾에서 보듯이 target은 ‘실제 혹은 상상의 대상’을, source는 ‘비일상적인 해석에 관련되는 개념 등’을 뜻한다면, 특히 ‘거지’를 source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에서 나열되는 여러 항목들이 비일상적 해석 과정에 참여하는 개념들이라고 본다면 Bipin의 용어 개념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의 구조를 source와 target 간에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본다면 이 이러한 지정은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와 거지의 같은 점’이라는 명명이 보여 주는 것은 ‘교수’와 ‘거지’의 병치이므로 일단 둘은 같은 구조적 층위에 놓여 있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양자가 동등하게 target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rget의 성격을 ‘교수’쪽에 부여하고자 하는 근거는 그 예화의 말미에 첨부하는 ‘다른 점’의 존재에 있다. ‘교수 마누라는 남편 알기를 거지같이 안다’는 진술은 ‘거지 마누라는 남편 알기를 하늘같이 안다’에 대비되면서 교수의 격하를 겨냥한 의도를 내보인다. 이 점

5) Bipin Indurkhya, 앞의 책, pp.14-15. 여기서 target과 source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는 점을 너그럽게 살펴 주기 바란다. 굳이 옮긴다면 target은 ‘對象’으로 source는 ‘情報源’ 또는 ‘資料’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번역한 말이 개념적이거나보다는 확산된 일상어로 보이는 혐을 지울 수가 없기에 적절한 역어가 마련될 때까지 원래의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회적 의미'라는 공통축과 연합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의도적 지향점이 교수에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다.

결국 이 상호작용은 '교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목록 제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표인 '교수'의 성격을 규정하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거지'와의 공유항으로 제시된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거지'가 '교수'를 감염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 감염효과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Susan Stewart에 의지하고자 한다. 그녀는 '일상의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창조된다'⁶⁾는 언어관을 지니고 있다. 언어활동을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입장의 당연한 결과로, 그녀는 common sense의 언어가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 반해 nonsense의 언어는 혁신과 평가를 통해 터부의 파괴에 이르는 비판적 활동이라고 본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터무니없음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 터무니없음이 문화적 질서의 파괴이며, 공통축이 전제됨으로써 사회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Susan Stewart의 관점을 원용하여 보태면 그 사회적 비판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이를 수 있을 듯하다. 그 구체적인 단서는 '교수와 거지'보다는 '전두환과 이주일'에서 더 실감 있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해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1) 대통령 : 코미디언 - 사회적 신분의 격차 인식
- (2) 대통령 = 코미디언 - 사회적 분류 체계의 파괴(동일시)
- (3) 대통령 ← 코미디언 - 분류상의 상위성 부정 효과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타당하다면, 동일시를 통한 상위성 파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은 상위자의 하락 효과라고

6) Susan Stewart, 앞의 책, p.13.

할 수 있다. 이는 코미디언이라는 신분이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코미디언의 격상을 가져오기보다는 반대로 대통령의 코미디언화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코미디언이 대통령에 전이력을 발휘한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감염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염효과는 상위 신분의 인상적 하락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분류 체계를 뒤흔들어 놓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 비판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리된다. 그 추리의 구체적 설명을 여기서 상술하지는 않겠지만, 이 우스갯소리의 효과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쾌감의 성격은 굳이 분석해 보이지 않더라도 체험한 사람들의 감각에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서 80년대의 사회 비평적 몫을 자료 B는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료 B와 같은 사회 비평적 기능을 가진다면 그 의도며 근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지'에 의한 '교수'의 감염효과를 통하여 교수의 사회적 격하가 이루어졌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다만 자료 B의 감염 대상이 정치가 그것도 특정의 대통령 개인임에 비해서 자료 A의 감염 대상은 집단으로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감염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인지되었으리라는 것⁷⁾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이러한 감염효과의 기능은 여러 경우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아한 것에 대하여 비속한 것이, 정당한 것에 대하여 불법적인 것이 감염효과를 형성함으로써 그 분류의 체계를 뒤섞는 데서 오는 통념의 파괴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감염의 효과가 일상어의 문맥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의 문제는 좀더 섬세한 분석을 요한다 하겠다.

7) 실제로 자료 A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크게 웃었지만, 자료 B에서는 대학 주변의 인사들이 더 크게 웃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2) 상호텍스트성 - 유머 기능

터무니없음의 생성과 이해의 과정에서 해석 작용이 행해진다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 터무니없음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사고작용은 그 상대축인 '터무니있음'의 향이 주목되고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마치 은유의 유사성 제시가 이질성을 전제하는 것과 동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터무니없음'의 화자라면 어느 누구도 '터무니있음'에 대한 인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점은 입증된다. 이해의 과정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있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청자가 '터무니없음'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터무니없음의 은유 구조가 지니는 공리적 측면과 즉각 연결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 터무니없음의 언어 형식은 그 자체만을 주목하게 하지만, 그 사고과정에서는 터무니있음의 세계가 면밀하게 검토된다는 점에서 인식 능력의 증대, 지식 증대의 효과, 사고의 구조화 기능 등 교육적 공리성과 관련된 기능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앞의 축적이 많은 사람에게서 터무니없음에 기반한 대화가 풍부하게 생산된다는 점을 통하여 이런 측면이 고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방면의 관심은 다른 자리로 미루고자 한다.

우리의 관심은 이 상호텍스트성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을 성립 가능케 하는 자질에 대해서 생각한다. 터무니가 있음과 없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텍스트성은 그 양자가 지닌 자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쪽이 문화적 분류 체계의 질서에 기대어 있는 데 반해 다른 한 쪽이 그것의 파괴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대립적 혹은 역동적 긴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Susan Stewart는 이 자질이 그 지시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변별된다고 보고 있다. 즉, common sense의 사고는 실재 세계(real world)를 지시하는 데 반해, nonsense의 사고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거나 그 사고 자체

를 지시한다⁸⁾는 설명이다. ‘교수와 거지’나 ‘전두환과 이주일’이 실제 세계의 구체적 대상을 지시한다기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Susan Stewart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Susan Stewart는, nonsense의 언어는 구체적 실재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할리데이의 반언어(antilanguage) 또는 순수언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부정언어라고 부르고자 한다⁹⁾. 여기서 부정언어라는 명명을 하는 까닭은 nonsense가 common sense에 대한 인식으로서만, 그리고 common sense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의 관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의 견해를 좇아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이 지니게 되는 유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터무니있음과 터무니없음의 상호텍스트성은 이 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과 부정의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 모순과 부정의 관계가 벌일 수 있는 작용의 양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자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자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양립하는 것이다.

‘교수와 거지’나 ‘전두환과 이주일’은 그 반대항인 터무니있음의 질서에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 중 어느 하나가 부정되지 않고 양립한다는 점이 관찰된다. 이것은 논리를 벗어난 체계성을 말해 주며, 따라서 실제 세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순되는 두 세계 즉, 터무니있음과 터무니없음의 배반적 관계를 인지하면서도 이것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는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터무니없음이 터무니있음에 의해서 비로소 인지되고 그 모순성이 드러나는 상호텍스트성의 과정에서 터무니없음은 실제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지만 실제 세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모순항의 양립

8) Susan Stewart, *ibid.*

9) 앞의 책, p.41.

은 동일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그 성립이 지시하는 의미의 차원을 달리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터무니있음이 실제 세계라는 차원이라면 터무니없음은 실제의 세계를 떠난 곳에 있게 된다.

실재의 세계를 떠난 그 곳은 어디인가? 언어활동을 형성하는 두 축이 언어기호 자체와 실제 세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언어활동의 요소이면서 실제의 세계를 떠난 그 곳은 언어 자체의 세계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터무니없음이 추구하는 것은 언어 자체의 향유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터무니없음이 언어 자체의 향유를 지향하면서 터무니있음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이 모순의 충돌이 갖는 언어유희적 성격이 드러난다. 언어 자체를 즐거움으로 향유하는 언어의 체계가 언어의 놀이문화를 이루고 있음은 경험 일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다.

이 언어유희의 기능을 생각해 본다. 터무니없음이 터무니있음에 의해 인지되고, 그 상호텍스트성에 의해서 모순성이 인식될 때 작용하는 기능은 상식의 파괴 의도를 통한 상식 지우기의 웃음 추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국면에서 웃음이 발생하는 까닭은, 양자의 모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가 양립한다는 데 있다. 동일한 실제의 차원에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충돌과 전투의 양상을 띠게 되며, 그 결과는 한 쪽에 의한 한 쪽의 제압 또는 부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실제와 언어라는 상이한 차원에서 형성되는 모순이어서 일상의 문화적 질서가 파괴되는 쾌감을 불러오게 된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웃음의 유발 유형은, (1) 동일해 보이는 것에서 차이가 감지되는 유형과, (2) 서로 다른 것에서 유사성을 감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덩달이 시리즈는 소리의 층위에서 같아 보이면서도 실제로 차이가 감지되는 데서 그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웃음이 유발되는 (1)유형이다. '교수와 거지'는 (2) 유형에 속함이 쉽사리 이해된다.

이러한 성격의 웃음이 갖는 유머적 기능은 또 다른 관찰과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그것은 유머 감각이 단순히 천부적 재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효과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웃음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과 발상의 틀을 해명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가 웃음을 우리 문화에서 추방해 버릴 뜻이 없는 한 이런 이론의 틀을 세우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터무니없음의 상호텍스트성이 그 기능으로서 유머를 지향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다만, 유머의 바탕이 상호텍스트성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지되었다면, 유머 문화가 어떤 수준의 언어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시사만을 던져 두기로 한다.

4. 生活文化의 理論을 위하여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숙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는 터무니없음의 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일이 문화론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해 두고자 한다.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이 지니는 개별적 특성으로 이 부분은 이미 고찰되었지만¹⁰⁾, 이러한 개별 연구의 체계화를 통하여 터무니없음의 문화적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민족문화라는 관점에서 이 방면의 이론적 추구가 갖는 의미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둘째는 유머 문화는 언어 사용을 논의하는 수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말할 때 유머를 섞어 하면 씩 좋다'는 수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민족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 우리 문화 유산이나 오늘날의 일상

10) 金大幸, 「桐里의 웃음: 터무니없음 그리고 판소리의 세계」, 『동리연구』 창간호, 1993, p. 35-50.

어 맥락에서 충분히 고구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이론의 모습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웃음을 연구하는 것이 경망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엄숙주의의 산물이며, 연구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론의 가치와 학습의 보람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경거망동이 될 것이다.

셋째는 언어 문화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과정이라는 Susan Stewart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언어의 사회성을 지나치게 경직된 목적의식의 성취나 강요를 위해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실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형식을 취한다면 우리의 이론은 그 정당성이나 유용성의 입지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전인미답의 것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인미답의 지경에 이 분야가 아직 남겨진 까닭이 안목의 부족에 있었고, 그 필요성이나 의의가 다른 어느 논의에 못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이 부분의 이론화를 위한 노력과 참여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 둔다.

그 밖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건성으로 스치면서 지나쳐 왔다. 사회심리적인 측면이나, 언어활동 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실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의 측면, 사고 가운데서도 언어적 사고는 국어교육이론의 몫이며, 그 가운데서도 창의적 사고 혹은 조직적 사고에 이러한 은유적 사고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하는 점 등은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방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노력과 보람이 모두 그들의 몫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 Horace M. Kallen, *Liberty, Laughter, and Tear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8.
- Susan Stewart, *Nonsense: Aspects of Intertextuality in Folklore and Literatu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Eileen Cornell Way,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Metaphor*,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1.
- Bipin, *Metaphor and Cogn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 金大幸, 「桐里의 웃음: 터무니없음 그리고 판소리의 세계」, 『동리연구』 창간호, 동리연구회, 1993.